

# 모든 열방 주 볼때 까지 / 2018년 12월

## 농쪽교회 소식

낫 전도사님이 교단 소속 2년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후 다른 교과정에 추가로 지원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2년제 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온라인 과정인 4년제, 좀 더 공인된 신학교에서 4년간 신학과정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공부와 사역, 그리고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까지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감사하게 모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맞벌이를 해야해서 자녀들을 친척집에 맡깁니다.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는 낫 전도사님과 잉 사모님, 위우와 와를 위해 기도송 부탁드립니다.



## 롬끌라오교회 소식



태국이 우기었던 몇달 간 성도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기는 비가 내려 조금 날이 시원해지는 시기이지만, 대신 습하고 세균 번식이 많아 태국인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환절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말라리아와 뎅기열, 식중독이 기승을 부립니다. 먹는 음식과 물을 매우 조심해야 하는 시기도 이때 입니다.

짜끄리 성도님도 뎅기열에 걸려 죽을 고생을 했고, 교사 언도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아짤께서 건강이 안좋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관절이며 여러 곳이 안좋은데다 이번에 자궁에 혹이 생겨 부득이하게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할머니 아짤이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 하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뉴비전 교회, 뉴비전 언어학교 소식



지난 8월 말 부터 뉴비전센터는 정식으로 뉴비전교회를 개척하여 매주 청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에서 가졌던 '뉴비전트립2018'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임과 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작지만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온과 쭈히는 믿음에 더욱 큰 도전을 받고 각자의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뿐의 식구들이 모두 예배에 참석했고 뿐의 언니인 뽕과 엄마 야우는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7월의 한글캠프를 통해 교제하기 시작한 빠오와 젠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어 학교를 통해 관계가 열린 방온, 암폰, 땡과 언어학교를 통해 한, 킴, 릿, 펜, 아이스 등 여러 형제자매들이 뉴비전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개념을 배우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매주 계속 출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제해 나가며 이들 안의 영적인 필요를 봅니다. 씨를 뿌리고 물주는 일은 저희의 몫이나 키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때문에 더욱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킹몽콧 대학교 캠퍼스 전도

매주마다 캠퍼스 전도를 나갑니다. 더운 날씨에 전도를 하며 새로운 영혼을 만나는 일은 설레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며 학교의 상황들도 살피고 학생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두는지 파악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킹몽콧 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이신 박문흠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전도하러 갈때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학교 상황과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나눕니다. 크리스천 교수님이 캠퍼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인데 그분과 저희를 연결하셔서 함께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킹몽콧 대학교를 위해 그리고 그곳에 심겨진 믿음의 동역자 박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영혼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 뉴비전 언어학교

지속적으로 언어학교에서 한글과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전보다는 사역의 비중을 언어학교보다 뉴비전교회 개척에 더 많이 두고 있어서 새로운 학생들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국도 대학생들은 많이 바깥니다. 목적없이 그냥 놀러 오는 학생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만나러 캠퍼스 전도를 가보면 그런 분주한 학생들과 1분 이야기 나누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언어학교에는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한 시간 수업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업시간을 학생들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으로도 활용합니다. 모든 교과정에 부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접하는 접촉점이 되게 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언어학교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가르치는 일에 지지치 않도록 새 힘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뿐이 영어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아직 부분적으로 참여하지만 뿐이 믿음의 교사로 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시온산이네 이야기



시온이와 산이는 다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학교에 수족구 전염병이 크게 돌았습니다. 시온이 산이도 걸려 한동안 학교를 결석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비염 알려지로 인해 둘 다 쉽지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은 덥고 실내는 에어컨을 트니 기관지가 참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기관지가 약해지는 걸 보며 마음이 참 안타깝지만 여러가지 노력으로도 이런 환경이 바뀌지않으니 쉽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염이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시온이와 산이는 친구들과 학교생활도 즐겁게 잘 하고 학업도 늘 잘해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언니오빠들을 교회로 초청하는데 시온산이가 한 몫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형아 누나들이 시온이, 산이 보고싶어 교회 옵니다. 열일 하는 꼬마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사진설명 : 저희를 가족처럼 생각해서 졸업식 가족 촬영에 초대한 '뽀' 가족과 함께)

## 골방에서 열방으로

- 1.[농쪽교회] 아짠 낫 전도사님 가정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농쪽지역에 복음전도를 쉬지않고 열심을 내도록
2. [로끌라오교회] 루완야이 목사님의 자궁 치유를 위해. 수술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위해. 언 교사를 통해 주일학교가 건강하고 내실있게 성장하도록
- 3.[뉴비전교회] 예수님을 영접한 임과 뽀이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자라도록.  
빠오와 젤이 믿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도록. 그외 지체들이 교회에 정착해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도록.
4. 킹몽콧 대학교의 캠퍼스전도 사역과 뉴비전 언어학교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5.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뽀 자매가 직장문제로 1년간 말레이시아로 출국 했는데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6. 시온산 비염 고쳐주시길. 학교생활을 즐겁게 잘 해나가고 있어 감사한데 친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시온이 산이 되도록
- 7.12월 성탄절을 맞아 농쪽교회, 롬끌라오교회, 뉴비전교회가 성탄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  
근방의 현지인들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접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